

# 북한사회의 변화전망\*

劉 載 天

I. 序 論

III. 北韓 社會의 變化展望

II. 北韓社會構造의 性格

IV. 結 論

## I. 序 論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변혁과 남북한  
동시 UN가입,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 거의 불가피하게 보이는 북한측의  
문화개방정책의 추구는 어떤 형태이든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측케 한다. 그  
러나 이와 관련한 우리쪽의 논의는 대체로 심정적인 우리의 기대에서 출발  
하고 있는 경향이기도 하다. 특히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준 대한민국 주  
도하의 남북통일에 대한 낙관주의적 국민정서의 형성과 북한체제내부의  
변혁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각종 교류를 통한 북한의 개방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의 통일정책이 맞물려 그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서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사회의 변  
화 전망은 잘못된 예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주의적 우월감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  
을 오도함으로써 오히려 통일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계해야 마땅  
할 경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북한사회변화에 대한 예측은 북한사회의 현실 그 자체  
에 대한 엄밀한 성격구명과 분석에 토대를 두고, 그것에 변화를 초래할 가

\* 이 論文은 第12次 韓中學術會議 第4會講에서 主題發表한 것임.

능성이 있는 대내외의 변수를 검토하는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같은 작업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같은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하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때문이다.

첫째, 그 동안의 반공정책으로 인해 정부기관이나 대학 및 여러 민간연구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일차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비록 확보된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접근 불가능한 보안조치로 인해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차자료의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이용을 허용했거나 공개한 북한자료는 검열을 거친 것이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들이었다. 그 결과 정부자료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스스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자료가 객관적 진실성을 지닌 것이라 할지라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겠금 만든 약점으로 인해 활용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셋째, 북한 당국이 스스로 대외에 공개하는 자료는 다분히 선전의 목적과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북한사회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적합치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상과 같은 북한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북한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과 북한을 취재했거나 여행한 사람들의 취재기사나 방문기와 같은 기록일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정보도 몇 가지 한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순자의 증언은 그것이 공개적인 발언이나 문서 또는 책자인 경우 정보기관의 검열로 인해 편파적이거나 사실의 가감이 가해진 것이기 쉽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솔직한 증언만이

어느 정도 높은 신뢰성을 지니게 되지만 그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둘째, 취재기자나 여행자들의 취재기사나 방문기 등도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 북한당국이 취재나 방문(여행)을 허용하는 지역, 만나는 사람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에 대한 체험과 관찰이 긍정적인 일부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는 다시 취재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현실로 인해 북한취재를 계속하려는 언론인의 경우 스스로 이 점을 감안한 私檢閱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방문자의 경우 그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해서 솔직한 방문기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첫 단계인 현실의 이해에서부터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이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현실을 전제로 하고 활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북한사회의 성격을 진단하고 그 변화를 전망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관계 여러 문헌들과 연구성과 및 북한 취재기사와 방문기록들, 그리고 귀순자들의 면담 조사자료 등을 원용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 II. 北韓社會構造의 性格

### 1. 基本性格

북한사회구조의 기본성격은 집단주의, 조직사회, 계획사회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세 가지 기본성격은 말할것도 없이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은 북한의 최고규범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잘 규정되어 있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9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

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하고, 제68조에서는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또한 북한은 노동계급을 사회 경제적 처지와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자본계급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며 자기희생, 조직성, 규율성을 가지는 혁명적 계급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지배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sup> 북한에 있어 집단주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강화하고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업에 헌신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열의를 높이 발양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사회제도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필수적 담보가 된다.<sup>3)</sup>

둘째, 이러한 집단주의는 자연히 사회주의적 조직생활로 구체화되며 매개되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를 강한 혁명적 조직성에 두고있다. 공산주의 사회의 혁명적 조직성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된다고 보고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북한에서는 인민학교(국민학교에 해당) 2학년이 되면 모두 소년단에 입단해 조직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고등중학교 3학년이 되면 소년단 생활을 마치고 다시 전원이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연맹)의 회원이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각 직장별로 조직된 각종직업동맹이나 여성동맹에 가입하면서 사로청을 떠나기도 하고, 계속 사로청에 남을 수도 있다. 직업동맹과는 별도로 북한 사람들은 18세가 되면 로동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된다. 사로청이나 각 직업동맹의 추천으로 입당하게 되는 로동당원이 되는 것은 북

1)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편찬한 <현대조선말사전>에 의하면 공민이란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정치사전>, pp.1082~1083.

3)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p.467~468.

한 사람들의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직업동맹과 로동당의 맹원이나 당원에게 특별히 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가 되면 조직생활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맹원이나 당원직을 떠날 수도 있고 계속 남아 조직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sup>4)</sup> 말하자면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인민학교 1학년 이전의 어린이와 정년퇴직 이후의 노인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년단-사로청-직업·여성동맹-로동당 중 하나 이상의 조직체에 가입되어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조직생활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 매주 토요일은 조직활동을 하는 날이라 할 수 있다. 즉, 각 조직별로 토요일에는 학습과 총화를 하게 된다. 학습이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비서의 저작을 연구하고 또 당면한 국내외정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말하며, 총화란 조직생활(직장생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토론하는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상호비판)을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보통 학습이나 사상교양 등이 상의 하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측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볼만 하다. 즉 학습과 총화시간에는 직장에서의 직위를 떠나서 모든 조직구성원이 동일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며, 조직은 토론결과를 수렴해 상급기관에 반영하기 때문에 하의상달과 인민들의 전체 의사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총화시간의 비판기능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당이 과오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당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과오를 막기 위한 비판기능이 바로 토요일학습과 총화이며, 당과 조직내에서 부단한 토론과 자기비판, 호상비판을 통해 극복된다”는 사회과학원 서창식 부원장의 말이 그러하다.<sup>5)</sup> 그러나, 이같은 학습과 총화의 기능도 궁극적으로는 잘 고안되고 조직된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혁명과업의 완수를 위한 메카니즘이라 할 것이다.

4) 조재길,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서울 : 삼민사, 1990, pp.49~50.

5) 같은 책, p.56.

“이 모든 조직의 상부중추조직이 바로 조선로동당이며, 당의 지도자(혹은 영도자)가 바로 ‘수령’이다. 북한은 수령을 정점으로 당과 조직, 그리고 인민(각종 조직의 구성원)이 하나로 뭉친 거대한 조직사회였다”는 북한을 취재한 한 언론인의 관찰은 바로 북한 사회구조의 조직사회적 성격을 압축한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세째, 북한사회의 집단주의와 조직사회적 성격은 사회생활의 각 부문에 걸친 계획사회적 성격으로 더욱 강화된다. 이른바 「공산주의적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달성하고자 실시하는 인민경제계획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북한이 자랑하는 11년 무상의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은 학업성과 조직생활의 평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이 순위에 따라 대학진학자로 추천 되기도 하고 각 지역행정기관에서 직장을 배정받게 되며,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입학정원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간부양성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과별로 각 도에 정원이 배정된다는 사례 하나만으로서도 북한사회의 계획사회적 성격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식량배급, 의류공급, 주택배정 등의 제도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인 의식주를 국가의 계획 아래 관리하는 계획사회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 된다. 모든 것이 국가와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연금을 받는 은퇴한 노인들 이외에 실업자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실업자로서는 생계를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철저한 계획사회적 성격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회통제의 방식이 된다.

이상과 같은 성격을 지닌 북한사회는 「김일성 神政체제」라고 규정되기도 한다.<sup>7)</sup>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으로 말한다면 「單一 家父長制의 大家族社會」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은 ‘수령’이며 당은 어머니이고 가족은 인민인 家父長制의 大家族社會인 셈이다. 그리고 이 가족이 지향하는 바 목표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며, 가족의 규범은 「주체사상」이 된다. 그러므

6) 같은 책, p.50

7) 이상우, 김일성 神政體制의 강점, 조선일보 편, 北韓, 그 충격의 신상, 조선일보사, 1991, pp.258~259.

로 김정일 비서가 ‘수령’이 된다는 것은 가장의 권위에 따른 장자상속이 될 것이다. 북한사회를 이와 같이 보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나 북한의 고위지도급 인사들의 어록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주체주의 철학자인 북한 사회과학원 부원장인 서창식은 “수령, 당, 인민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다”는 삼위일체설을 갈파하면서 사회를 생명체로 비유할 때 인민은 세포이며 당은 중추신경이고 ‘수령’은 뇌수라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사회유기체설의 비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김일성주석의 어록에서도 家父長制의 大家族社會의 개념이 확연해진다.

“우리 인민들은 …… 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와의 혈연적 관계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sup>9)</sup>

다시말해 북한은 국가(state)와 사회(society)가 분화되지 않은 거대한 정치조직체라 할 수 있다.

## 2.北韓社會에 대한 認知的 문제

북한사회의 실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제한된 정보나 혹은 편파적 관점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방문했거나 취재한 작가나 기자들이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말 속에서 그동안 북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많은 편견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깨닫게 된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의 틀은 남한 사회의 체제 모순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북한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려 하거나 또는 일부 주체사상 동조자나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를 이상으로 삼는 세력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반공이데올로기를 국시(?)로 삼았던 지난 날의 정보통제와 정보조작에 따라 우리 국민사이에 보편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때,

8) 조재길, 같은 책, p.60

9) 김일성,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1990. 5. 24.

우리는 북한사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틀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특히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측코자 한다면 더욱 그러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올바른 현실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귀순자들과의 비공식적 면담에서 행해진 증언들과 취재기자 및 방문자들의 기록 속에 나타난 북한의 생활실상과 사람들의 행동규범 등을 발췌하여 잘못된 우리의 인식을 수정해 보는 시도를 하고자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북한사회가 철조망에 둘러싸인 고도의 통제상황 아래서 명령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영사회라는데 토대를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속에서 인간의 삶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형상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공산주의정권이 우리의 전통적인 인간관계, 관혼상제, 풍속 등을 철저히 파괴하였으며 인간성을 송두리째 말살하였다는 반공교육으로 인해 그러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을 '뿔 달린 도깨비'로 알고 자란 세대의 비극도 거기에 연유한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철저하게 집단주의, 조직사회, 계획사회라는 점을 전제하고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삶의 실상을 통해 그 현실을 바로 보는 시각의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아래와 같은 증언과 기록의 내용들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1) 우리는 북한사회가 철저한 상호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리하여 부부간, 친척간, 친구간, 부모와 자식간에도 자유롭게 대화를 못하며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비정의 사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한때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한 조직사회인 북한사회가 감시를 통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날 교육 받았던 정도로 비인간적인 사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만철씨는 면담에서 "우리들이 알기에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집에서 일어난 일을 신고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사회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상당히 겁낸다고 하던데요”라는 질문에 대해 “학교에서 부모가 한 말을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간혹 자기 부모가 정치비난 하는 것을 듣고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라 얘기하면 그것이 퍼져서 혼나는 경우는 있지요. 안전원 가족 아이들도 있으니깐요”라는 대답이나<sup>10)</sup> 또는, 귀순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사람들은 불만이나 불평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표현이 불가능 하다는 응답이 45%, 친구나 친지에게 표현한다가 27.5%, 부모형제에게 표현한다가 17.5%, 부부 사이에 표현한다가 10%로 나타난 것을 미루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2) 북한에서는 결혼시기도 국가가 통제하며, 배우자의 선택도 당이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1971년 6월 사로칭 제6차 대회에서 결혼 연령을 남자 32세, 여자 27세로 정했다는 자료도 있으나 결혼연령에 어떤 구속이 현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취재기자나 방문객의 관찰이며, 김만철씨의 처남인 최평섭씨의 증언도 그러하다. 북한에서 대체로 여성은 25세, 남성은 27~29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여성들의 혼기가 늦은 까닭은 평양 이외의 지역에 사는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평양을 떠나 남편이 사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평양을 떠나지 않기 위해 평양에서 일하는 남자를 구하다 늦는다는 말도 있다. 배우자의 선택도 선을 보거나 연애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한다.<sup>11)</sup> 또한 젊은 남녀간의 교제도 우리 사회에서처럼 개방적이지는 않지만 “남녀가 합석하는 각종 집회와 교양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며 가며 당당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기에 따라 자주 생긴다”는 진술이나 또는, 대동강변이나 으스스한 시내의 장소에서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는 취재기자나 방문기를 감안할 때, 비교적 자유로운 것

10) 조선일보 편, 北韓, 그 충격의 실상, p.23.

11) 결혼에 대해서는 조재길, 같은 책, p.99와 조선일보사 편, 같은 책, p.120을 참고할 것.

으로 생각된다.<sup>12)</sup>

(3) 간소하기는 하지만 관혼상제도 예와 다름 없으며, 시신은 매장만 할 뿐 화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갑잔치나 생일잔치도 차리고 친척이나 이웃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기도 하지만 잔치상 차림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체로 간소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4) 북한 사람들은 북한소설을 가장 많이 읽고, 그 다음으로 김일성 저작선집이나 전기물을 많이 읽으며 외국소설 번역물도 읽는다. 김만철씨의 장남 김광규군은 번역도서로 에디슨박사, 북극탐험, 보물섬 등을 읽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4)</sup>

(5) 북한 주민들의 경우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종교관은 종교를 미신으로 여긴다가 55%, 인민의 적이라는 의견이 32.5%, 인간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 1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만철씨 일가의 면담에서도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러하다.

(6) 부부싸움도 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다.<sup>15)</sup>

(7)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의 사진은 집집마다 '모신다'. 그러나 그들 사진앞에 꽃을 꺾어 꽃아 놓거나 매일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신문같은 것에 인쇄된 수령의 사진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수령'의 사진은 지극히 모셔야만 한다.<sup>16)</sup>

(8) 산아제한을 국가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들까지 낳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도 남아선호경향이 강하다. 결혼한 여성의 낙태수

12) 남녀교제에 대해서는 이찬삼, 평양특파원, 중앙일보사, 1990, 조선일보사 편, 같은 책, p.72, p.92 등을 참고할 것.

13) 가정의례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편, 같은 책, p.89, pp.115~119, p.147, 이찬삼, 같은 책, p.122를 참조할 것.

14) 조선일보 편, 같은 책, p.97.

15) 같은 책, p.93.

16) 같은 책, p.115.

술은 인정되고 있으며, 두 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에게는 불임수술을 권장하고 있다.<sup>17)</sup>

(9) 북한사회에도 범죄와 부조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사회의 범죄나 사고, 사건 등이 외부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 언론이 그 같은 뉴스는 뉴스로 취급하지 않아 보도하지 않기 때문일 뿐이다. 북한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보다 그 발생빈도가 낮을 뿐 강도, 절도, 강간,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혼모 문제, 청소년 일탈행위, 간통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귀순자들은 북한사회의 범죄와 부조리로서 절도 65%, 강간부의 직권남용 25%, 성범죄 5%, 태업 5%의 순으로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들어 북한사회의 부패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대학입학에도 금전거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배속되는 것도 돈이나 백이 작용한다고 알려졌다.<sup>18)</sup> 북한사회는 고도의 통제사회이고 조직사회이므로 범죄나 부조리 또는 부패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은 그릇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뇌물을 주는 것을 '뒷 문 치기'라 부른다. 이러한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공개재판을 열기도 한다.<sup>19)</sup>

(10) 북한에서는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친척의 개념도 6촌까지만 인정한다고 알려졌다. 친족의 범위가 줄어들면 이웃이나 조직내의 유대가 더욱 강조되어 각 협동농장이나 직장 그리고 국가가 하나의 가정과 같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취재기자의 진술은 흥미할만 하다고 생각된다.<sup>20)</sup>

둘째, 북한사회를 인식함에 있어 사회복지제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북한사회에 대한 논의에서 이 부분은 크게

17) 조재길, 같은 책, 조선일보 편, 같은 책을 참조할 것.

18) 조선일보 편, 같은 책, p.69, p.71, p.85, p.118, p.124, p.133, pp.145~147, p.160, 조재길, 같은 책, p.132, 이찬삼, 같은 책, p.123을 참조할 것.

19) 조선일보 편, p.82.

20) 조재길, 같은 책, pp.99~100.

주목받지 못하여 왔다. 그 까닭은 대체로 두 가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 되는 것이다. 즉, 그 하나는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자칫 북한 체제의 찬양 내지 우월성으로 곡해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거나 외면해 온 면이 있다는 점이며, 나머지 하나는 복지정책과 같은 사회정책은 북한의 경우 정치의 종속영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 관심사로 취급되어 주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이든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복지제도를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국가의 복지제도는 잠재적 혹은 현재적 동기로 볼 때 정권의 정당화와 노동력의 유인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회주의국가의 사회복지제도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기능을 넘어서서 정치지배자에게 유리한 대중조작과 통제의 전형적인 도구로 변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사회주의복지정책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지배정당이 노동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곧 노동대중의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각에 동의한다면 사회통제의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도 북한사회의 복지제도를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옳을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만 사회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가 본래부터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규범, 즉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신의 필요(요구)에 따라 분배받는다”라는 규범의 실현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인간이 지닌 욕구(필요)에 따른 분배는 공산주의 사회의 규범으로 간주되며, 사회정책은 국민의 욕구와 생활방식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 과정 및 구조를 관리하고 발전시

20) 안병영, “소련사회복지의 전개,” <중소연구> 1983년 봄, 한양대 중소연구소, p.

키는 집합적 활동의 총체이며,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소멸과 계급없는 사회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 된다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이렇게 본다면 사회주의 사회의 복지제도는 사회주의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전반적인 목표 그 자체가 된다.<sup>23)</sup> 우리가 만약 이러한 규범론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북한사회의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곧 북한이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현단계는 어떠한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와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사회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변동의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겠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관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취재기자의 취재기사나 방문객들의 방문기록을 보면 그들이 만난 사람들 입에서 한결같이 “수령님과 당의 배려로 아무 근심 걱정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말해지며, 마치 조건반사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전을 위한 정치학습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도외시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보아 넘겨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앵무새의 학습된 반복어일지라도 그 속에 조그만치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중요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걱정없이 산다”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의미는 북한사회를 이해함에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하건, 혹은 그 실질이 매우 빈약하건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북한사회의 핵심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즉

22) V. George & N. Manning, *Socialism Social Welfare and the Soviet Union* : Routledge & Kegan Paul Ltd., 1980, p.166, 최일섭, “사회복지제도와 운영실태,”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 율유문화사, 1990, p.306에서 재인용.

23) Rovert J. Osborn, *Soviet Social Policies*, The Dorsey Press, 1907, p.17, 최일섭, 같은 글, 최명 편, 같은 책, p.307에서 재인용.

사회보험(연금,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공적부조(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구호), 사회복지서비스(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자복지), 관련제도(보건의료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제도와 근로대중 사이의 사회통합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세째, 북한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한 측면은 규범체계라 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규범체계는 주체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북한은 끊임없이 「주체의 인간」을 주조해 내기 위해 규범교육을 전 사회, 전 생애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우리사회의 규범체계와 비교하여 북한의 규범이 지니고 있는 「금욕주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취재기나 방문기 또는 귀순자들과의 면담에서 드러나고 있는 금욕주의적 규범의 단면들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 남한에서 북한을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한 귀순자의 응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약사상」이 (남한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였다.

— “여관은 출장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양권과 증명서가 철저하면 다 들어간다. 여관에는 남녀칸이 따로 있고 안내원도 따로 있다. 부부도 여관에서는 따로 자야 한다.”

— “여기에 와서 텔레비전에서 쇼하는 것, 특히 노출이 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뭐라고 말 하던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만철의 부인 최봉례씨는 “더럽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의 치마길이가 가장 짧아야 무릎 아래 10센티 정도 노출될 뿐이다.

— 85년 고향방문단이 방북했을 때 평양에서 있었던 남한 예술단의 공연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자본주의의 물이 든 퇴폐적인 사회풍조라고 생각했다.”

— 북한에 몸을 파는 여자는 없다.

—연애하는 것이 ‘수치’이다.

이상과 같은 말들은 북한사회의 금욕주의적 규범의 단면들을 보여줄 뿐이지만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때 묻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상고백과 함께 방문기나 취재기사 속에는 북한사회의 금욕주의적 면모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인상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탐욕주의적 규범과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사회가 상당한 정도의 금욕주의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사회규범을 강조하고 그것에 주목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북한사회가 변화함에 있어 큰 변수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방에 따른 금욕주의 규범의 변화양상이 북한사회변화의 관건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귀순자들의 면담에서 나타난 북한사회 규범에 대한 응답결과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규범\정도	높 음	보 통	낮 음
정 직 성	32.5%	45 %	17.5%
근 면 성	47.5%	32.5%	15 %
낙 관 성	12.5%	60 %	25 %
준법정신	57.5%	17.5%	22.5%
협 동 심	62.5%	17.5%	10 %

### Ⅲ.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 1. 變化의 여러 조짐들

북한을 취재한 기자들이나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록 가운데는 북한사회가 변화하는 조짐을 관찰한 내용들이 더러 보인다. 특히 이러한 관찰기록 중에서 시차를 두고 북한을 방문했거나 취재한 사람들의 증언을 주

목할만 하다. 뿐만 아니라 귀순자들이 말하는 북한사회의 변화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그같은 관찰기록이나 체험담을 그대로 여기에 몇 가지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동구 공산국가들에 유학중 귀순한 대학생들의 증언) 전철우 : “(유학생들이 외국에)나와보니깐 당간부나 중간간부도 당일꾼으로 변해야 된다. 「평축」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못 산다. 외국인들 옷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 정말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더라 말입니다”, “휴전선지역은 특수지역으로 즐을 그은 통행증이 있어야 하는 데 안전원에게 담배 몇 갑, 술 한 병만 주면 그냥 휴전선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당신들 당에 충실해야지 않는냐고 물어보면 「먹고 살아야지 내가 충실하다고 당에서 먹여주나」라고 말한답니다”, “이제는 안전원이고 국가보위부 사람이고간에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만 주면 공항같은 데서는 가방도 열어보지 않고 무조건 통과됩니다.”, 김은철 :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 진짜로 놀랐습니다. 어떤 똑똑한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생각에는 10년 내에 북한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변할 것 같답니다. 꼭 변화할거고 변화해야 된답니다.”, 남명철 : “사로청 간부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는 20년 동안 북한에서 교육 받아온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밑으로부터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조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 하니까 행동엔 못 나선단 말입니다. 그것이 축적되면 터질 때가 있겠지요.”<sup>24)</sup>

—— 젊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기성세대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은 분명했다.<sup>25)</sup>

—— 특히 북경에서 유학한 북한의 젊은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방물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와 “중국이 홍콩을 통해 개방의 물결을 받아들인 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전쟁 후 이만큼 일했으니 이제 우리도 잘

24) 조선일보사 편, 같은 책, pp.16~161.

25) 조재길, 같은 책, p.66.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항변을 늘어놓는다며 때로는 구세대와의 심한 의견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였다(어느 조총련 간부와의 대화 내용).<sup>26)</sup>

——비단 크리스마스 뿐 아니라 아직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40여년간 굳게 차단되었던 사회의 덧문이 뻐뿌이 열리고 개방의 물결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들고 있음을 느꼈다.<sup>27)</sup>

——고려호텔 로비에서 만난 상좌계급장을 단 고급장교는 기자에게 북한 젊은이들의 개방풍조를 걱정하는 말을 털어놓기도 했다. “전쟁을 겪지 못한 젊은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까불고 있는데, 조국의 앞날을 내다 볼 때 심각합니다”라는 주장이었다.<sup>28)</sup>

——북한의 사회문제 중에는 남녀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렸고, 제한적이거나 만나본 몇몇 사람들에 의해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성문제와 사회변화 조짐은 일면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자극하는 체제와 사상을 전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이야기가 쉬웠던 부분이다.<sup>29)</sup>

——고려호텔에 함께 투숙해 있던 60대 조총련 재일동포는 “여름철 대동강변에는 청춘남녀들이 포옹하거나 허리를 감싸고 데이트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라며 북한이 여러모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sup>30)</sup>

——‘평양 밤거리에 취객들이 있었다’는 첫번 기행문이 남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제는 이같은 광경은 ‘새로운 사실’이 아닐 만큼, 잘못보면 ‘불량기가 있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휩쓸려 다니기까지 했다. 그들의 의상, 머리 스타일도 2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고대끼 있는 머리는 물론, 치렁치렁한 잔파마에 너도나도 머리핀을 꽂고 있었으며, 서울의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깡다만 머리처럼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26) 이찬삼, 같은 책, p.58.

27) 같은 책, p.71.

28) 같은 책, p.119.

29) 같은 책, p.123.

30) 같은 책, p.124.

따라 뼈죽이 내려오는 히피형 하며, 뒤집어서 다섯 줄로 땀은 디스코 스타일에 금색 줄로 묶은 머리, 그리고 커트형의 머리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목걸이를 안한 사람이 이상할 만큼 진주나 굵은 모양의 서구형 네클레스와 패션 벨트를 착용했으며, 진한 화장을 한 여성도 많이 눈에 띄었다. 역삼각형으로 보이는, 어깨폭이 넓고 소매 안쪽을 여유있게 만든 기모노식 최신 유행 옷이 곳곳에서 보였으며, 색상 또한 노란색, 빨간색, 베이지색, 분홍색, 보라색 등 대담해 졌다. 여성들의 옷차림과 미용에 '패션'이 가미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2년전 보다 드러나게 발전해 있었다.<sup>31)</sup>

## 2.北韓社會의 變化展望

앞에서 예시한 북한사회의 변화조짐들 가운데서 취재기자들이 관찰한 보고들은, 어쩌면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면서 배웠던 북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토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판단한 것들일지 모른다. 즉 엄밀히 말한다면 'A로 알았던 세계가 가보니 B더라'는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는 성격의 것일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들은 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무엇인가 북한사회에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일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변화의 조짐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북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오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외형적인 변모일지 모르나 형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 유학생들의 귀국과 방문객, 관광객의 왕래 및 각종 국제교류는 북한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보는 시야의 지평을 넓히는 작용을 하게 되며, 그 결과 자신들의 삶의 질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

셋째, 북한사회에서 뇌물이 통하며, 날이갈수록 그같은 부패가 확산되고

31) 같은 책, pp.149~151.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집단주의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변화의 조짐만을 근거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단정하거나 그 방향을 예측하기는 위험하다. 한 사회의 변동에는 더 많은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취재기자나 귀순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고민을 진술된 원고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문제에 대한 응답율은 경제낙후 22.5%, 범죄 17.5%, 고위층의 직권남용 12.5%의 순이었다.

— 자본주의 사회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북한의 개방 바람은 외부에서 보는 바과 같이 소련의 개혁과 동구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수준향상에 대한 욕구와 이에 따라 경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자체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민족적 자립경제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외국과 교역, 교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교류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 즉, 자주적인 개방정책의 추진은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당면 과제이다.<sup>32)</sup>

— 개방정책에 따라 재일, 재미동포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가 스며드는 현상도 북한으로서는 적지않은 고민거리인 것 같다……자본주의 사회의 관광객을 맞이 위해 북한의 체제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총련계 귀국자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구입해서 보내주는 자동차와 생활용품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사람들보다 잘 살고, 지금까지는 월남

32) 조재길, 같은 책, p.134.

자 가족으로 주목을 받던 재미동포들의 가족이 교포들의 방문이나 송금으로 갑자기 형편이 나아지는 데서 오는 혼돈도 없지 않은 것 같다.<sup>33)</sup>

——북한의 고민은 무엇일까?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식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세계가 점차로 복합문명권으로 변해가고 경제지구촌이 되면서 혼자서 자기네 식대로만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북한은 개방이나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 식대로 산다’는 기본틀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우리 식대로’ 사는 데서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은 경제적인 도전이다……첨단산업과 함께 뒤떨어진 경공업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하는 현실적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또 자본주의적인 것을 일부 경제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조직과,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고민이기도 하다.<sup>34)</sup>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sup>35)</sup>

——개방충격이 물고 올 내부동요에 대한 북한의 고민이다. 그러나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은 개방충격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었다. 작가나 학자들은 “서구 것이 들어오면 조금 건들거리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대답을 하고, 관리들은 겉으로는 든든하다고 말하면서도 “자본주의 문화 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신중한 경제자세를 취했다. 모기장을 쳐서 자본주의의 시원한 바람은 받아들이지만 자본주의 모기의 독침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sup>36)</sup>

이상과 같은 관찰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최대 고민은 근로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로 보인다. 그것은 공산주의사회건설의 목표이기도 하며 근로대중에 대한 ‘수명’과 당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

33) 같은 책, pp.134~135.

34) 조광동, “북녘동포의 삶. 마음. 꿈” 한겨레신문, 1991년 6월 9일자 7면 기사.

35) 같은 글.

36) 같은 글.

동포들의 잦은 왕래와 해외유학생의 귀국, 잦은 국제교류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승하는 기대로 인해 그같은 과제는 더욱 절박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도달한 북한의 경제는 그야말로 '우리 식대로'는 그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방정책을 펴야 하겠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 영향, 즉 '자본주의체제 아편'이 유입되는 것이 두려운 까닭에 북한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갈등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기장을 치던 어떻게 하던지 최대로 '자본주의의 아편'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면서 경공업발전을 위한 경제개방정책을 추구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북한사회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변화가 어떤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어날지는 또 다른 변수와 연관된다. 그것은 家父長的 大家族社會라 할 수 있는 북한사회-조직사회의 통합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근로대중들이 '수령'에 대해 지니고 있는 존경과 신뢰의 정도, 당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家父長的 家族社會의 통합력은 가정에 해당되는 '수령'과, 어머니 구실을 하는 '당'에 대한 가족성원의 존경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귀순자의 의견, 취재기자나 방문자의 체험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귀순자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도록 한다.

— 김일성 '수령'의 우상화에 대해 9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북한정부 및 당의 선전내용에 대해 62.5%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 당 및 국가에 대한 기대와 관심사항은, 풍요로운 생활 77.5%, 공산사회혁명완수 57.5%, 남북통일 50%의 응답 순으로 나타난다.

— 북한이 무엇을 성취하는 데 적합한 사회인가에 대해, 사회주의혁명 성취 60%, 국제 공산혁명 완수 20%, 자신의 개인목표 성취 15%의 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재기자나 방문기자들이 본 견해를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에 대한 충성과 흠모는 바로 북한인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하다.<sup>37)</sup>

—— 어느 날인가 김양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다. 2, 3년 전에 꿈속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가 나타나 “은하동무, 고생이 많수다”하며 자신의 어깨를 감싸준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생님, 그런데 그게 깨어보니 꿈이지 않아요” 진지한 어조로 말하는 표정은 스스로도 감격에 겨운듯 했고,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다.<sup>38)</sup>

—— (청류관에서 일하는 접대원 가운데) 한 아가씨가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셨습니까?”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아가씨는, “그러시다면 우리 조국처럼 아름답고 잘사는 나라를 보셨습니까?”하고 재차 물어왔다. 강성회라는 이름의 이 아가씨도 예외 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얘기하며 모두가 끌고루 잘사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믿고 있었다.<sup>39)</sup>

—— 당 10대원칙에 당의 결정지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시비걸고 하지 않는다. 북에 실제로 살아보면 나오면 나오나 보다, 하라면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만다.<sup>40)</sup>

—— “김일성의 투쟁경력, 김정일의 능력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적으로 믿는다. 나이 든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따르는 사람 반, 믿는 사람 반이고 젊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 믿는다.”<sup>41)</sup>

—— 여기와서 김일성, 김정일 하니까 이상해 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해야지.<sup>42)</sup>

—— (외국인들에게 김일성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몰랐다. 그래서) 처음

37) 조재길, 같은 책, p.59.

38) 이찬삼, 같은 책, p.69.

39) 같은 책, p.85.

40) 조선일보사 편, 같은 책, p.125.

41) 같은 책, p.85.

42) 같은 책, p.94.

에 성날 때는 막 붙잡고 “김일성 수령님은 하늘에서 낸 분이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흥미를 안느꼈고, 그 자체가 우리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때려눕혔습니다.<sup>43)</sup>

이상의 인용문만으로도 우리는 북한사회에서 ‘수령’과 당에 대한 근로대중들의 존경과 신뢰가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수령’과 당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북한사회의 현실이다. 神政體制에서의 신이 바로 ‘수령’인 것이다. 당에 대한 불만도 있으나 그것은 당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간부에 대한 비판이요 불만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체제의 본질을 뒤엎는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겠다.

실제로 바깥 세계 그리고 우리들 속에서는 루마니아 사태와 같은, 또한 천안문 사태와 같은 것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고 또한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같은 예측이나 기대는 성급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귀순자들의 의견을 참고 한다면, 당이나 국가의 정책에 불만이 있더라도 맹종할 것이라는 응답이 80%, 중국이나 소련에서와 같은 시위가 발생했을 때 북한주민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 불참할 것이 42.5%, 참여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30%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현실을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 있다 30%, 사회주의 완성까지 당연히 인내한다 32.5%, 다소 참기 어렵다 15%, 반발 직전 15%의 응답을 순위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일반화 한다는 것은 잘못일 것이지만, 그러나 귀순자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는 점에서 유의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검토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건대 북한에서의 변화는 상당기간 동안 체제본질적인 것이 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 식대로’의 주체를 고수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근로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그에 따라 불가피하

43) 같은 책, p.153.

게 초래되는 변화에 상당히 융통성있게 대응해 가리라고 예측된다. 그리하여 주체적인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1990년 5월 24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김일성 주석의 시정연설내용으로도 뒷받침 된다고 생각한다.<sup>44)</sup>

“사회주의에로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인 것인만큼 사회주의가 전진하는 과정에 예견치 않았던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을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웅당 교훈을 찾고 대담하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문제는 전진도상에서 부딪치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며 사회주의 위업을 어떻게 계속 전진시켜 나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 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친다고 하여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며 피로써 생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오직 사회주의 원칙과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해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그리고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혁명적 인민들은 정세가 복잡하고 반동들의 공세가 강화될수록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공화국 정부는 자주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인민들의 이익과

44) 로동신문, 1990년 5월 24일자.

세계 진보적 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대외정책을 세우고 그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91년의 신년사를 다음과 같은 수사적 표현으로 끝맺고 있다.<sup>45)</sup>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 일시적인 좌절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적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법칙입니다.

전진도상에 부닥친 난관에 굴복하여 원칙을 버리고 역사의 궤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패와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진리와 원칙을 고수하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 것과 낡은 것, 진보와 반동 사이의 복잡한 투쟁과 혼란한 정세 속에서 21세기로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영도 밑에 신념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민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 IV. 結 論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체제 자체가 소련이나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변혁에서 보는 것처럼 급격하게 와해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도 中國式의 정책이 채택되리라고 생각된다. 북한사회의 변화가 소련이나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북한사회 자체의

45) 1991년도 김일성 신년사, 1991.1.1. 09:00-09:50 조선 중앙방송으로 방송됨.

성격에 연유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개방에 따라 견잡을 수 없는 체제변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대나 평가는 성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家父長制의 大家族社會로 철저하게 통합이 이루어져 있는 사회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메카니즘이 무엇이건 '수령'과 당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신임이 형성되어 있다. 家長에 대한 正統性에 조금의 회의도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집단주의와 조직사회 및 계획사회의 성격은 45여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추구된 정치사회에 의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북한사회의 사회통합을 이해함에 있어 동양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부장제적 權威주의의 전통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 규정되는 사회의 특이한 성격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中國이나 북한에서 강력한 권위주의적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오랜 역사적 경험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경우 서구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현실과 그들의 공고한 체제가 존속하게 되는 정치문화의 토대를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문화의 굳건한 바탕을 지닌 동구권과 다민족 연방체제의 소련과 中國을 북한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북한사회는 家父長制의 儒敎의 規範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력은 바로 그 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변화할 것이다. 그 변화는 주체적 사회주의 체제내의 탄력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그와 같은 대응으로 스스로 변화를 수용해 왔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과 사회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 목표설정 등에 따라 계획된 단계마다에서 스스로 변신해 왔다. 그들이 말하는 바 민주건설시기(1945. 8. 15~1950. 6. 24), 조국해방 전쟁시기(1950. 6. 25~1953. 7. 26),

사회주의 건설시기(1953. 7. 27~1969. 12. 31), 그리고 사회주의 성숙시기(1970. 1. 1~현재)마다에서 북한사회는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 변화의 전개과정은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 출발점이 된다.

북한의 그들이 목표하는 바 사회주의 사회의 물질적 요새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경제교류의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같은 개방이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다. 그 방법은 정치사회화와 자기비판을 통한 체제내의 개혁으로 이루어지리라 본다. 그리고 물질적 요새의 구축과 관련하여 그것의 진전성과 및 대외개방에 의해 점증할 개인의 욕구-자유, 개인이익의 추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그것은 '수령'과 대리인, 그리고 당이라는 성역을 제외한 기타 영역에서의 자유의 확대로 보아도 좋을리라 여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남북 교류 등-도 체제유지를 전제로 한 점진적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의 성급함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다.